

성인여성의 의복원형개발 및 패턴캐드를 이용한 패턴제도법에 대한 연구

손 희 정*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겸임교수)

이 금 희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의류업체에는 이미 90%이상이 패턴캐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패턴캐드의 활용은 패턴 그레이딩과 마커(요척)작업만 이용할 뿐 패턴디자인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패턴캐드를 이용해서 직접 패턴을 제도하면 수작업에 의한 패턴을 다시 컴퓨터로 입력하는 디지털링 작업과 입력된 패턴에 대한 정확도 조절을 위한 패턴조정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간단한 조끼 및 블라우스 등의 아이템은 그레이딩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패턴캐드를 이용하여 패턴디자인을 할 때, 신체의 밀착도가 매우 높은 의복원형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패턴을 제도할 수 있다. 이것은 모니터상에서 디지털이저된 의복원형을 레이어드 시키면서 복사된 제2의 의복원형을 필요한 디자인에 따라 여유량을 확장해 나가며 의복패턴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간단한 패턴은 이때 사용하는 의복원형을 미리 그레이딩하여 사용한다면 디자인패턴 또한 자동으로 그레이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패턴디자인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캐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체에 피트되는 의복원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인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둘레가 증가하며 의복의 피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꼭지점의 위치가 다소 벌어지고 하수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령별로 다른 의복원형을 사용하는 것이 신체적합도가 높은 의복생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전 연구에서 개발된 의복원형제도법을 기초로하여 보다 간편한 의복원형을 개발한다.
2. 성인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의 표준원형을 제시하였다.
3. 개발된 원형을 활용하여 OPTITEX 패턴캐드를 활용한 재킷제도법을 제시하고 실험용 재킷을 제작하여 재킷에 대한 착장실험을 통해 재킷제도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연구방법은 연령별로 3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의복원형을 착의실험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의복원형을 개발하였으며 국민 표준치수를 근거로 최종원형에 대한 그레이딩을 행하였다. 개발된 의복원형을 활용하여 패턴캐드에 의한 재킷패턴법을 제시하였으며 30대 표준치수 재킷착의 실험을 통해 제도법에 대한 검증을 행하였다.